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행위자에게 도덕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윤리학의 목적임을 중시한다
- ④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임을 간과한다
- ⑤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이 윤리학의 본질임을 간과한다

2.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적 관계의 목적은 가계 존속에 필요한 생식이다. 따라서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며, 가족 관계의 존속 및 사회의 유지와 관련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을: 성적 관계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성인들 사이에 서로 동의한 성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병: 성적 관계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실현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 ① 갑은 자발성을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본다.
- ② 을은 성적 관계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③ 병은 인격적 가치가 성적 관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결혼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3.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언적 명령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따르는 형식 및 원칙과 관계가 있다. 이 명령은 행위의 본질적인 선함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의 명령이라 일컬을 수 있다.

을: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① 도덕적 행위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인가?
- ②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른 행위만이 선한 행위인가?
- ③ 인간이 따라야 할 행위의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가?
- ④ 도덕적 판단에서 행위의 결과가 동기보다 중요한가?
- ⑤ 자연적 경향성을 도덕 원리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가?

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위적 규범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②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禮)를 회복해야 합니다.
- ③ 연기(緣起)를 깨닫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 ④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⑤ 시비(是非)를 구별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5.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삶의 주체'는 믿음과 욕구를 가지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며,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한다. ... (중략) ... 그들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논리적으로 독립하여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복지를 갖는다.

<사례>

개, 원숭이, 토끼 등 많은 정상적인 동물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실험 대상이 되어 희생당하고 있다.

- <보 기>
- ㄱ. 삶의 주체인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ㄴ.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ㄷ.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ㄹ. 모든 동물은 인간과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분배는 평등한 자유를 토대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될 때 정의롭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p> <p>을: 분배가 정의롭기 위한 충분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를 획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p>
(나)	

— < 보 기 > —

ㄱ. A: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ㄴ. A: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의로운가?
 ㄷ. B: 원초적 입장에 놓인 개인들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가?
 ㄹ. C: 교정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의한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밝힌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누구를 구제하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가를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A)</td><td>(C)</td><td></td><td></td></tr> <tr><td></td><td></td><td>(B)</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국가 기관에서 공공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 (B): 사업이나 일 등에서 이루어낸 성과나 공적</p> <p>[세로 열쇠] (C): 개념</p>							(A)	(C)					(B)							
	(A)	(C)																			
		(B)																			

- ①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다.
- ② 자아실현을 위해 세속적 활동에서 벗어난 것이다.
- ③ 신앙과 무관하게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 ④ 부(富)의 축적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사회적 활동이다.
- ⑤ 원죄에 대해 신이 내린 형벌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다.

8.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태극은 동(動)하여 양을 낳고 동이 극에 달하면 정(靜)에 이르고 정함으로써 음을 낳는다.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한다.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니 서로 각각의 근원이 된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장유 사이에는 순서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 천지가 있는 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후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는 후에 ㉠이/가 있고, ㉠이/가 있는 후에 부자가 있다.

- ① 자연스러운 친애의 정에 기초한 혈연관계이다.
- ② 상하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 ③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함께 살아가는 동기간이다.
- ④ 상호 간에 효와 자애를 실천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⑤ 상호 공경하며 서로를 보완해 주는 대등한 관계이다.

9. 다음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仁)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는 활쏘기를 하는 사람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한 이후에 화살을 발사한다. 설령 화살을 발사해서 명중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맞추지 못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위해 자기를 돌아볼 뿐이다.

- ① 자신의 이해관계를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② 자신의 수양보다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면 시비선악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 ④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신체를 단련해야 한다.
- ⑤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0.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창작자에게 저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을: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독점의 장벽이야말로 자유의 구속이다. 저작권을 인정하면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요구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① 갑: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 담긴 공동의 자산이다.
- ② 갑: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 ③ 을: 창작자에게 저작의 권리를 인정해야 창작이 늘어난다.
- ④ 을: 저작권을 배타적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⑤ 갑, 을: 정보가 제한 없이 공유될 때 생산성이 증대된다.

11.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소수 인종 등의 사회적 약자가 과거부터 받아 온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일반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X: 개인의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정도
 •Y: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강조하는 정도
 •Z: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동물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이다.</p> <p>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하면, 인간의 작은 이익을 위해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p> <p>병: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인 선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나)	

<보 기>

ㄱ. A: 동물도 이성이 있으므로 간접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ㄴ. B: 동물과 식물은 종이 다르지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ㄷ. C: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ㄹ. D: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삶이란 죽음과 같은 무리이고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니 누가 그 끝을 아는가. 사람의 삶은 기(氣)가 모인 것으로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니 만약 삶과 죽음이 같은 무리임을 안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을: 가장 두려운 악(惡)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 ① 죽음은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인가?
- ②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감각 능력이 상실되는가?
- ③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 ④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
- ⑤ 죽음과 삶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거의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 변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모든 법을 지키며 양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 부재할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인격을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한다.

<문제 상황>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치료 비용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A는 자신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자기 결정권에 의한 모든 행위는 도덕적임을 고려해 결정하렴.
- ② 자신이 지닌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고려해 결정하렴.
- ③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해 결정하렴.
- ④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고려해 결정하렴.
- 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만이 윤리적임을 고려해 결정하렴.

16.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의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행위의 모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로 인해 나타날 나쁜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을: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사례>

과학자 A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연구를 자율적으로 진행해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바이러스 돌연변이는 전염병의 확산은 막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보 기>

ㄱ. 갑: 연구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
 ㄴ. 을: 전염병을 막을 의도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책임이 없다.
 ㄷ. 을: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연구이므로 책임이 있다.
 ㄹ. 갑, 을: 자율적인 의지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형 제도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을: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형벌의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등성의 원리이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 학생 답안

사형 제도에 대하여, 갑은 ㉠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고, ㉡ 일시적인 억제 효과만을 지닌 사형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사형 제도의 목적이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에 있다고 보고, ㉣ 사형이 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벌의 지속성보다 강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집단에서 나타난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이성적 능력은 충동 간의 갈등, 특히 사회의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 ①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② 개인적 양심의 도덕적 통찰은 정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③ 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 설득과 강제력 사용은 병행될 수 없다.
 ④ 집단이 작을수록 그 집단은 이기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정치적이라기보다 지극히 윤리적이다.

19.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교정 기술로 다양한 난치병에서의 치료 가능성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 기술을 배아 단계부터 허용하여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을 고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배아 단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치료 목적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선택된 유전자를 지닌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 유전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
 ㄴ. 을: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ㄷ. 을: 배아 단계에서 인위적 유전자 교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가위 기술은 허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강조하는 이 두려움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 ① 도덕적 책임의 대상에 미래 세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③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④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